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통 권 _ 제 197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6년 12월 17일

함즐함울

www.pcltv.org

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50여명의 성도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주님, 5000여명의 양떼를 이끌 선한 목자를 보내 주소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나의신앙이야기_김고미

2면

영어예배사역팀 Worship Night

3면

로 템 나무

Christmas? Xmas!

지난 반세기 동안 크리스천들은 성탄절의 상업화에 대해서 슬퍼해왔다. 많은 사람들은 신문이나 잡지 광고 등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라지게 하고 그 자리를 대신해 짧은 글자로 사용해 온 'X'를 지적해 왔다. 그러나 'X'의 유래는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해온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Xmas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7세기 카톨릭교회의 문서에서이다. 그들은 'X'를 보다 정교하게 그리면서도 당시 흔하지 않았던 종지와 잉크를 줄이기 위해 'X'라는 단축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문자와 초대교회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많은 이방인 성도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는 Xristos(크리스토스)이다. 많은 그리스인들은 'X'를 신앙의 상징으로 사용했다. 'X'가 표시된 곳은 그들이 예배했던 장소였다. 그리스인을 전도한 사도 바울 역시 'X'가 무엇을 의미하였는가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당시 많은 그리스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순교자의 표시로 'X'를 그렸다. 'X'는 순교와 희생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이후, 교회는 Xmas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더불어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상징 해왔다. 1800년도 중반에 들어서면서 Xmas는 상업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단순히 지면을 줄이고 광고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되거나 미국의 문맹인들을 위한 배려로 사용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은 'X'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모른 채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X'만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X'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은 기독교의 큰 손실이다. 초기 그리스 기독교인들은 비록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했고 성탄절을 축하하지 못했지만, 그들을 믿음으로 살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X'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며 신앙고백이었다.

편집부, Traditions of Christmas
(ACE COLLINS,ZONDERVAN) 중에서

이야기가있는 “성탄절 찬양예배” 오는 20일, 회중들과 함께 나누는 성탄의 은혜

오는 12월 20일 수요일에는 호산나찬양대(지휘:박영주집사)의 “이야기가 있는 성탄절 찬양예배”가 수요일예배로 드려진다. 이번 예배는 성탄절 관련 신구약 성경구절을 회중들과 교독하여 읽고 성탄 관련 찬송가를 역시 회중들과 함께 부르면서 성탄의 은혜를 나누고자 기획되었다. 특별히 이번 예배에는 찬양뿐 아니라 성극팀에서 별도 준비한 크리스마스 연극, [크리스마스 파티]도 공연될 예정이다. 최명숙집사가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한 성탄절 연극은 성탄절을 맞아 더욱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 24일 오후 3시 30분에는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성탄 축하공연이 있고 2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성탄절 예배가 있다.

길가에교회 창립 1주년 예배



《길가에교회》 창립 1주년 기념예배가 12월 11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길가에교회에서 열렸다. 2005년 12월 9일 주님의교회 첫 번식 교회로써 탄생한 길가에교회는 40여명의 주님의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화중고등학교에서 첫 예배를 시작해 현재 120여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길가에교회) 창립 1주년 기념예배가 12월 11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길가에교회에서 열렸다. 2005년 12월 9일 주님의교회 첫 번식 교회로써 탄생한 길가에교회는 40여명의 주님의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화중고등학교에서 첫 예배를 시작해 현재 120여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30CUP 성탄축하예배



“어찌이일이있으리이까?”

12월 17일 오후 3시 30분 대예배실
소울 싱어즈 / 마임 /
누가복음 1:26-38/ 마리아의 노래

※같은 시간에 1층 유년부실에서 어린이 영화 [폭풍우 치는 밤에]가 상영되고 예배 참석한 모든분께 30컵에서 제작한 2007 캘린더를 드립니다!



연말정산 서류 인터넷 신청

www.pcltv.org 클릭!

교회 홈페이지(www.pcltv.org) 메인의 하단에 있는 “인터넷사무실”을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현장 | 요나의 박넝쿨 신앙 |

마음의 눈에 먼지가 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13일 수요일예배에서는 신화식 목사가 요나서 4장 5절~11절 말씀을 주제로 '박넝쿨 신앙'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니느웨로 돌아간 요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고, 그 결과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 그러나 회개하면 재앙도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요나는 니느웨의 회복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선교의 서원기도까지 했지만 요나는 자신의 근본 속마음은 바꾸지 못했던 것이다.

요나는 니느웨의 결말을 지켜보고자 초막을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여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 이 날 새벽, 하나님은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여, 해가 요나의 머리를 뜨겁게 쪼이도록 만드셨다. 정신이 혼미해진 요나는 하나님께 성내며 차라리 죽기를 기도했다. 아이들의 수만 어림잡아 12만

명에 달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보다 박넝쿨이 없어진 상황이 더 다급했던 요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가 회복되기를 바라지 않는 요나의 속마음을 간파하셨다. 성경은 "네가 수고도 아니 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 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니느웨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요나는 철저히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시선이 고정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게 된다. 신화식 목사는 이를 '마음의 눈에 먼지가 끼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감정기복이 심한 다혈질 성격을 지닌 요나의 모습은 일반적인 선지자의 이미지와는 다르지만 현재 우리들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의료선교부 송년모임

지난 12월 9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의료선교부 송년모임이 양평 닥터박 갤러리에서 열렸다. 의, 치, 한, 약, 지원부서등 약 40명이 참석한 모임은 갤러리 관람, 올해의 결산과 내년의 계획, 식사 등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 또한 참석한 부원들을 소개하고 함께 찬양을 하며 신앙간증과 축복기도회의 시간을 가지며 친밀함을 더했다.

총회는 의료선교부를 이끌 임원진을 전원을

만장일치로 유임시키고 2001년부터 시작한 안산 외국인 근로자센터의 진료를 이달까지로 마감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하남외국인 근로자센터로 옮겨 진료를 계속하게 된다.



안산 외국인근로자센터 진료 마감



주님의교회 의료선교부에서 2001년부터 시작한 안산 진료를 이번 12월 10일의 진료를 끝으로 마감했다. 초기에는 격월로, 이후에는 안산 지역 두 곳을 매월 진료하기도 하였는데, 6년간 총 60여회에 걸쳐 매회 10여명의 의과, 치과, 한의, 약무, 지원팀 등이 총 20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진료했다.

이날 진료 후 안산 센터의 박천웅 목사는 6년간 진료해준 의료선교부에게 감사하는 패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김학원 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안산센터의 진료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진료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길 기회를 늘리기 위해 교회 인근의 하남외국인센터로 진료사역지를 변경하게 됨을 설명했다. 김 집사는 하남은 교회에서 보다 가까운 곳으로 더 많은 의료진들과 성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의 김학원 집사 011-9769-6937, 최석주 집사 011-432-2222)

나의 신앙 이야기

“엄마*!! 오늘 넘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방학, 학원선교부에서 만나게 된 올해의 정신여고 아이들과 좀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경춘선타고 춘천에서 닭갈비를 먹기로 한 것이다. 아침 10시에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탔을 때 삶은 달걀과 음료수 한통에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원래의 계획은 12시에 춘천역에 내려 춘천 명동 닭갈비 먹고 4시 30분 서울행 열차를 타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항의'는 돌아오는 열차를 7시 30분으로 연기시켰고 더 맛있는 닭갈비를 먹겠다는 욕심이 생겨 역원이 가르쳐준 별미집을 찾아 두 블록 정도를 걸어갔다. 한여름 땀방울에 아스팔트를 걷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땀을 흘리며 도착한 별미집 앞에 “금일휴업”이라 써 있었다. 아이들은 거의 주저앉았고 나도 몹시 당황했다. 서둘러 택시에 나누어 타고 명동으로 향했다. 배고픔을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나니 이제 몸이 폭 늘어졌다. 모두들 에어컨 있는 곳에서 쉬었다 가자고 한다. 하지만 이왕 먼 곳까지 갔으니, 마침 소양강댐이 세 번째 갑문을 열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해서 그 장관을 보러 30분이나 버스를 기다려 소양강댐에 도착했다. 그러나 폭포같이 흐를

줄 알았던 물은 없었다. 알고 보니 30분전에 수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대략난감* 좋은 구경시켜준다고 큰 소리쳤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다. 할 수 없이 배를 타기로 하고 선착장으로 행했다. 그때 갑자기 '배가 떠나니 빨리 오라!'고 아래서 소리를 쳤다. 전력질주! 모두 뛰어서 표를 끊고 배에 올랐다. 어쩌면 그렇게 바람 한 점 없고 배는 왜 그토록 천천히 가던지 30분이나 걸려서 청평사로 들어갔다. 계곡에 발이라도 담궈야 오늘의 일과가 보람 있을 것 같아 중턱까지 올라가는데 한 아이가 발을 절룩거린다. 새 슬리퍼가 발을 아프게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물에 도착한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장난을 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마지막 배를 놓치지 않도록 선착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요즘 안내표를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가 들어올 때 탄 배는 8,000원짜리 관광호였고 목적지로 곧장 가는 배는 2,000원이었다. 우리는 필요 없는 관광호에 많은 요금을 지불하고 시간을 낭비했다. 이래저래 서두르다보니 실수의 연발이었다. 기차역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버스를 기다리다 늦어지면 택시타고 서울에 가야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역가

지 택시를 탔다. 역에 도착하니 출발 30분 전이었다. 저녁생각이 없다고 한 아이들이 밤9시, 청량리에 도착하니 모두 배가 고프다고 야단이다. 시간이 늦었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어 분식집에서 저녁을 먹고 다같이 잠실행 버스를 탔다. 그런데 이 버스가 면목동을 뱅뱅 돌고 운전사까지 바뀌가며 한 시간 만에야 잠실에 도착했다. 미리 집에 연락들을 시켰지만 부모님들이 걱정 하실 것 같아 단단히 부탁을 하고 헤어졌다. 집에 오니 11시 30분, 남편이 묻는다. “뭘하다 이제와?”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그때 올리는 핸드폰 메시지 “엄마!! 오늘 넘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그래.. 이 맛에 고생도하지 예쁜 것들.....’ 행복한 여름 추억을 마음에 새겼다. 김고미(집사, 학원선교부)

* 엄마 : 학원선교부에서 파송하는 기도 어머니는 정신여중고의 학생들을 믿음의 자녀 삼아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원봉사자들을 ‘엄마’라고 부른다.

* 대략난감 : 자신의 상황이 대체적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거나 당황했을 때 쓰는 말로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다.



보배함을 연 동방박사에게 배운다

“예배의 삶으로 드리는 가장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함은 순간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으로 얻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사제들이거나 바벨론의 점성술가라고 추측되는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5마일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성경을 읽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언제 어디서 이 선물을 준비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길을 건다가 그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해서라도 집에 들르거나, 시장에 가서 선물을 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들이 분명 기뻐하였고 그들의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분명 그 보배함을 저들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위해 대형 쇼핑몰에 간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리 준비된 것을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그 보배함을 열어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드릴 예수님의 선물을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예수님 생일 선물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생일 선물과는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신중하게 선물을 고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드릴 선물은 좀 더 특별한 것이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 선물로 드릴 것은 돈으로 사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그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황금이든, 유향이든, 몰약이든 상관 없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배함을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물질적인 것이거나 가시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으로 얻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떠한 사람은 그 사람의 보배함을 열어 온유한 마음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인생의 보배함을 열어 사랑과 자비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의 삶에서 체득되어진 성실함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

각은 신앙인의 삶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의 중요성보다 그날 이전의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값진 인생의 보물로 우리 예수님께 선물하기 위함입니다. 그 선물은 분명 값진 것이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선물은 분명 명품이되,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동방박사처럼 행복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의 보배함을 열어 가장 귀한 것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보배함을 기꺼이 열어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동방박사처럼 말입니다. 이세상의 어떠한 선물보다 우리 모두가 바로 아기 예수님께 드려지는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모두는 각자 다른 별을 보고 이곳 주님의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예배함으로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아기 예수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김현령목사(함줄함을 담당)

영어예배사역팀

힐송 연합 찬양집회, "Worship N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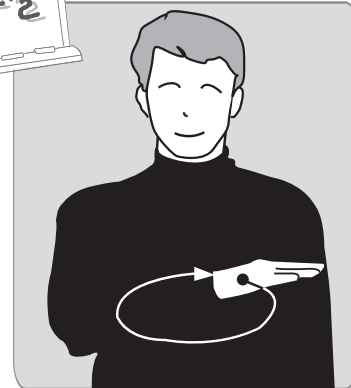


다. "내 구주 예수님", "주께 가오니", 그리고 "주 품에 품으소서" 등이 힐송교회의 대표적인 찬양곡이다. 현재 주님의교회 영어예배도 힐송교회의 찬양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연세중앙교회에서 열린 Worship Night은 2시간 동안 열정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Worship Night 전에는 찬양 사역팀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다

On November 18, the members of the English Ministry gathered with Christians from all over Korea to worship with the Hillsong United Worship Team. The Hillsong United Worship Team, from Australia, has produced numerous albums which serve as the basis of musical worship for Christians all

11월 18일(토) 오후, 주님의교회 영어예배 12명의 멤버들은 힐송교회 연합찬양팀의 "Worship Night"에 참여해 전국에서 모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찬양했다. 호주의 힐송교회는 여러 앨범을 발표해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예배음악으로 사용하고 있

over the world. Songs by Hillsong include "Shout to the Lord", "Power of Your Love", and "Still". The gathering, held at Yonsei Central Church, was filled with grace and excitement as Korean and Foreign Christians alike for 2 hours of English praise. The time also included a short sermon by one of the assistant pastors of Hillsong Church. As an added benefit, the worship team participated in a worship-leading seminar before the worship night, which proved to be a blessing becaus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English Ministry's worship songs are Hillsong praise songs.



너희[여러분] you

오른손을 펴 가슴 앞에서 원을 그린다.

Misson 함줄함울,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그저께
음악회에 갔습니다.”



오늘은 함께 날을 세어 볼까요?

	금	토	일	월	화	수	목
이	그저께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글쎄	그글쎄
	-2	-1	0	1	2	3	4

삼 일 전은 '그저께'입니다. '그저께'나 '그제'가 아닙니다. '그제'라고 해도 됩니다. '그제'도 '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모레만 입에 익고, 그글쎄나 글쎄, 그글쎄는 좀 낯설죠? 그러나 모두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교회생활 이모저모

요람 사진 촬영



2007 교회요람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성도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 간: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1시 30분
장 소: 1층 소예배실 왼쪽입구

함줄함울 기사모집

<로템나무>

작은 사건이나 생각속에서 발견한 감동과 기쁨을 나누는 이야기 A4 1/4 분량

<나의 신앙이야기>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간증문 A4 2/3 분량

<구역모임, 사역부서 이야기>

서로에게 사랑과 덕을 쌓는 공동체 이야기 A4 1/3 분량

※위의 글을 hamnews2006@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기사는 함줄함울편집회의를 거쳐 신문에 게재됩니다.

길가에교회 창립 1주년

“무질서 속에 그리스도의 질서가 생겨...”



이날 길가에교회의 첫예배를 축하하기 위해 주님의교회 많은 성도들이 창립1주년 예배에 참석했다.

권오승 장로는 하나님께서 길가에교회에 헌신할 일꾼과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학교와

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듯이 이러한 영향력이 국가와 민족에게까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한다고 기도 했다. 이인호 목사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은 예정이 되어있으며 그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어둠의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셨듯이 무질서 속에 그리스도의 질서가 생기기를 바란다며 길가에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져 나아 가야함을 강조했다. 예배후 성도들은 교육관에 모여 생일축하파티에 참여했다. 생일축하떡 위에는 1년을 상징하는 한 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고 참여한 성도들은 생일축하노래를 부르며 길가에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예수마음을 품은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 (길가에 교회 비전채택)



구역모임

영적 성장을 기대하는 4-1구역



12월 9일(토) 오후에 4교구 1구역 식구들이 송년 식사모임을 가졌다. 4교구 1구역은 정립전자 취업 중인 교우들의 구역으로 6가정과 6명의 교우들이 모여 구역 예배를 드리는 장애인 교우들의 특수 구역이다. 현재 몇몇 교우들은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그만두어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새로운 일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모임에 참석한 신화식 목사는 쉽지 않은 경제 속에서 비장애인들 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결코 좌절하거나 힘들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4교구 1구역 식구들은 작은 모임을 통해 서로가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해주고 올 한해도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하다고 했다.



한편, 2006년도에 안수집사로 피택된 한근희 집사는 인사말을 통해 4교구 1구역이 영적 성장을 계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주차실습후기

“더 많은 희생과 섬김으로 실천하는 자리”

저는 2006피택자 교육 과정으로 주차봉사 실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봉사자가 부족하여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침 차량 안내부를 돕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도 잠시 처음 주차부장 집사님의 안내에 따라 운동장 한구석에서 있어야 할 때에는 너무나 어색하고 쑥스러웠습니다. 곧 차량들이 운동장에 밀려들어 왔고 저는 어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차부 집사님들은 당황하고 있는 저와는 달리 예배 후 출입을 편리하도록 차들을 줄 맞춰 주차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반복되는 실습을 하지 않고는 집사님들의 노하우를 숙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는 넓은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생각하고 봉사자 집사님들의 수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몸소 봉사를 해 보니 주차봉사자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고 주차뿐 아니라 교회 곳곳에서 말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들의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을 뿐 서툴기만 한 저에게도 간혹 "수고하십니다!" 한 마디 건네주는 분들이 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도 앞으로 이 쉬운 한마디로 집사님들의 노고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임직자의 직분은 교우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희생과 섬김으로 실천하는 자리이며, 교우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봉사해야 하는 자립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부름꾼의 직분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최진옥(집사, 권사피택자)